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7월 임원회가 예배 후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가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화천 원천교회에서 열립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천안 단비교회에서 열립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휴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식 당 봉 사 : 고숙이 최현옥 이준립 서정순 오송경 조관행 김필순  
 7/31,8/7식당봉사 : 유경순 이은옥 최경미 이수정b이은정 최재욱 김윤수  
 오늘설거지봉사 : 이주현 김정우 김정행 조선환  
 다음 주 설거지 : 이준하 노우종 강미선 유상진  
 새 교 우 : 홍춘숙 (3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 육 관	오후집회	13:3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 육 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 전 주 ..... 반주자
- 임재의 기원 .....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 20(통41). 큰 영광 중에 ..... 다함께
- ♠ 공동기도 .....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의 가쁜 숨이 편안히 갖아들게 하시고 흠어져있던 생각도 차분히 질서를 잡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 명하신 곳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모두의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황량한 사막 같은 삶의 자리에서 불려도 울창한 숲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의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서 있는 위치가 달라도 서로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공감과 화해의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 위로의 말씀 ..... 사40:30,31 ..... 인도자
- ♠ 교 독 문 ..... 13. 시편23편 ..... 다함께
- ♠ 영 광 송 .....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 대표기도 ..... 한완식 장로
- 응 답 송 ..... 찬양대
- 찬 양 ..... 299(통418). 하나님 사랑은 ..... 다함께
- ♠ 성경봉독 ..... I. 창41:9-16 ..... 주혜연 선생  
 II. 눅14:12-14 ..... 조문규 권사  
 봉독자 :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 중 :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 찬 양 ..... 찬양대
- 말 씬 ..... I. 잊지 말아야 할 것 ..... 손성현전도사  
 II. 가슴에 심은 씨앗 ..... 김기석 목사
- 거둬기도 ..... 다함께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권미숙 김민화 김필순 박병구 김정애 박시내 박영희  
 오자영 조현권 박아영 김남종 오복순 임 영 정경례 최선미 홍성식  
 이유리 양재성 김혜영 박권동 장원호 박성희 허호범 박성실 곽새롬

### 월정헌금:

고숙이 박인혁 배부례 백성래 송임희 유상진 유은정 이성범 이소순  
 이수정 배재경 정완수 김재광 하현철 최성애 변재민 이소혜 이민범  
 정원석 김현영

### 감사헌금:

민병배 문현미 홍성식 이유리 박병구 김정애 이상중 이정은 허명선  
 배부례 무명7

### 녹색꿈헌금:

오재형 임고운 김용진 박효선 이나단 6여선교회

### 생일감사헌금:

	장혜숙	백혜숙		
	노순옥	정경례		
	임정자	최경미		
	문영혜	이명희		
	안정숙	진정숙		
	박홍재	곽권희		
	박효선	허정운		
	이순정	김금순	심	심
	이형숙	권미숙		
	안홍숙	오현정		
	정영선	이현숙		
	이영란	박미영		
	박혜경	조항미		
	김재흥	오자영		
	김기석	이건식		

## 보라, 감자꽃

박성우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일 갈 적에도  
 마을회관 놀러 갈 적에도  
 문 안 잠그고 다니는 니 어미  
 누가, 자식 놈 흉이라도 볼까봐  
 끼니때 돌아오면  
 대문 똑꼭 걸어 잠그고  
 찬밥에 물 말아 훌훌 넘기는  
 칠순에 닿은 니 홀어미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자주 감자꽃 피어 있다  
 어머니가 챙겨 싸준 감자  
 쪼글쪼글 씹혀서 버린 화단에  
 자주 감자꽃은 피어,  
 꽃핀 나 불라 말고  
 쪼글쪼글 오그라드는  
 니 홀어미나  
 자주 보라 자주 보라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보라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찬양	오재형 임고운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서로의 마음에 사랑의 씨앗, 소망의 씨앗을 심으며 사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기쁜 맘으로, 잔치하는 맘으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며 사십시오.
다함께 :	아멘. 작은 씨앗 하나 심어놓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조급해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잔치를 베푼 이의 넉넉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더욱 삶의 기쁨과 행복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b>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b>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기도 : 정영선 권사	이성운 전도사 기도 : 광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공동기도	리봄 선생
	김기석 목사	방문성 장로	진정숙 집사

7월	영접위원	한상익 허호범 윤성종 최숙화 박성실 김윤정
	헌금위원	한완식 정경례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목수가 만든 악기

노나라에 재경이라는 목수가 살았다. 그는 나무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나라에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다. 거문고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이 거문고에 대한 소문이 노나라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노나라 임금은 거문고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재경이 만든 거문고는 과연 명기였다. 임금은 재경을 궁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다.

“그대가 만든 거문고는 참으로 훌륭하도다. 그대는 무슨 기술로 이런 놀라운 악기를 만드는가?”

그러자 재경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임금님, 저는 그저 평범한 목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아무런 기술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악기를 만들기 전에 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합니다. 그

리고 악기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흘을 보내고 나면 상을 받는다거나 벼슬을 받는다는 따위의 생각은 들지 않게 됩니다. 다시 닳새를 그렇게 보내고 나면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 따위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됩니다. 이레째가 되면 세상 아무것도 저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오로지 악기 만드는 일만 생각날 뿐입니다. 그제야 비로소 저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무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겐 이런 것 말고 악기를 잘 만드는 기술 따위란 정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참 재미있다. 그리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재경이라는 목수는 자기가 이렇게 훌륭한 장인이 된 것은 마음을 비운 데 있다고 말한다.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과정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상이니 벼슬이니 하는 욕심을 버리는 일이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 따위에 마음을 쓰지 않는 일이고,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이 어지럽힘 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오로지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리고는 나무를 구하러 간다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는 데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일이 잔재주나 기교보다 훨씬 중요한 일임을 깨닫게 해 준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하는 일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서 속상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상을 받지 못해 불평불만을 터뜨리거나 상을 받기 위해 옳지 않은 방법까지 동원하고 또는 낮 뜨거운 일도 서슴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비단 악기 만드는 일뿐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욕심이 먼저 앞서서 마음이 흐려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

더구나 내가 한 일에 대해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의식해 노심초사하는 때가 참 많은 게 또한 사람이다. 나 역시 아직도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부끄러울 때가 많다. 조금만 칭찬을 받아도 흔들리는 게 사람이고, 비난에는 어떤 것도 참지 못하고 금방 흥분하고 흔들리는 게 사람이다. ....

주리반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 중에 머리가 가장 둔한 사람이었다. 아무리 쉬운 진리의 말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자 ‘먼지를 털고 때를 없애라’는 한 구절만 가르쳐 주었다. 바보스럽지만 정직한 주리반특은 이 한 구절만 정성껏 외며 다른 스님들의 신을 닦아 주고 먼지를 털어 주었다. 이렇게 긴 세월을 일하는 동안 드디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가질 수 있게 되었다. ....

어느 날 부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깨달음을 얻다는 것은 결코 많은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작은 한 가지 일이라도 그것에 철저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리반특을 보라. 그는 청소하는 것에 철저함으로써 마침내 깨달음을 열지 않았느냐.” ... 칼릴 지브란도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대들 만일 사랑으로 일할 수 없고 다만 혐오로써 일할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그대들은 일을 버리고 신전 앞에 앉아 기쁨으로 일하는 이들에게 구걸이나 하는 게 나으리라. 왜냐하면 그대들 만약 냉담하게 빵을 굽는다면 인간의 굶주림을 반도 채우지 못할 쓴 빵을 구울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대들 원한에 차서 포도를 짓이킨다면 그대들의 원한은 포도주 속에 독을 뱉으리라.”

어떤 마음으로 나무를 다듬느냐에 따라 그 나무가 천하의 보배로운 거문고가 되기도 하고 뿔감이 되기도 하며, 어떤 자세로 빵을 굽느냐에 따라 사랑의 양식을 만들기도 하고 독을 만들기도 한다.

- 「도종환의 삶의 이야기」 중에서